

# SK 문승원 '피홈런 1.43→1.64개' 역주행

(지난 시즌·올 시즌 9이닝 기준 경기당 피홈런)

대부분 투수 평균자책점 하락 불구 박진우·최원태, 오히려 ERA 상승 문승원은 19경기 20홈런으로 최다

변이 없는 한 4.30 안팎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다수는 '정주행'...1점대 ERA 노리는 린드블럼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ERA 1위를 정조준하고 있는 조쉬 린드블럼(두산 베어스) 역시 공인구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시즌 2.88이었던 ERA가 올 시즌에는 2.03까지 낮아져 최종적으로 1점대에 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KBO 리그 5년 차를 맞아 한층 성숙해지고 적응력 또한 높아진 영향이 더 크겠지만, 공인구 효과도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규정이닝을 채운 투수들로 확대해 살펴봐도 ERA 개선 경향은 뚜렷하다. 19일까지 규정이닝을 충족시킨 26명 중 올 시즌 KBO리그에 데뷔한 외국인투수 11명을 제외하고 지난해와 올해 성적을 비교해보면 대부분 큰 폭으로 ERA를 낮췄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양현산(SK



와이번스는 4.89에서 2.21, 양현종(KIA 타이거즈)은 4.15에서 2.56, 제이크 브리검(키움 히어로즈)은 3.84에서 2.91, 유희관(두산)은 6.70에서 3.07, 브룩스 레일리(롯데 자이언츠)는 4.74에서 3.71로 ERA를 내렸다.

●예외적인 '역주행'...쑥스러운 피홈런 1위 문승원

몹시 드문 경우지만 역주행으로 눈길을 끄는 투수들도 있다. 박진우(NC 다이노스)는 3.66에서 3.75, 최원태(키움)는 3.95에서 4.28로 ERA가 오히려 상승

했다. 박진우는 올해부터 선발로 전환한 사정, 최원태는 지난해 당한 팔꿈치 부상의 여파를 고려해야겠지만 리그 전반적으로 1점 가까이 ERA를 떨어뜨린 공인구 효과에서 비켜서있음을 부인할 순 없다. 3.07에서 3.04로 소폭의 ERA 하락세를 기록 중인 타이일러 월슨(LG 트윈스)도 새 공인구의 혜택과는 무관해 보인다.

홈런 허용 측면에서 살펴보면 문승원(SK)이 공인구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리그 전체에서 '최강 5선발'로 꼽히는 문승원이지만, 올 시즌 피홈런 20개로 이 부문 1위다. 문승원은 지난해에도 31경기에 등판해 150.2이닝을 던지는 동안 24개의 홈런을 허용했다(피홈런 공동 8위). 올해는 19경기에서 109.2이닝을 소화한 가운데 20개의 홈런을 맞았다. 9이닝 기준 경기당 피홈런으로 환산하면 1.43개에서 1.64개로 역주행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 LG 류중일 감독 '안으로 굽은 팔'



(삼성) "원태인과 신인왕 경쟁? 정우영이 더 유리하죠!" (LG)



LG 정우영

"홀드를 많이 하면 아무래도..."

LG 트윈스 류중일 감독이 올해 신인투수 정우영(20)의 신인왕 수상 가능성을 점쳤다. 류 감독은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전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나 이날 1군 엔트리에 복귀한 정우영의 소식을 전했다.

정우영은 올해 데뷔한 신인투수로 LG의 전반기 약진에 큰 힘을 보탤 전망이다. 42경기에서 4승 4패 10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은 3.12를 기록해 중간계투에서 맹활약했다. 그러나 지난 7월 26일 어깨 염증으로 인해 1군 엔트리에 빠지며 장기간 1군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다.

신인왕 페이스를 줄곧 유지했으나 1군 이탈로 인해 경쟁자인 삼성 라이온즈 원태인(19)에게 한 때 바통을 넘겨주는 듯 했다. 그러나 원태인이 최근 연달아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둘의 신인왕 경쟁이 다시 뜨거워졌다.

류 감독은 "정우영이 아무래도 더 유리하지 않나. 홀드를 많이 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 본다. 원태인은 승수를 쌓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각적인 필승조 기용에 있어서는 말을 아꼈다. 류 감독은 "조금 지켜봐야 한다. 경기가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기용을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대전에서 삼성 김한수 감독은 한화 이글스전을 앞두고 또 다른 신인왕 후보인 원태인에 대해 언급했다. 김 감독은 "(원태인은) 아직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지난 두 차례 등판에서 부진했는데, 21일 경기에서는 만회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 부고

◇나뭇잎씨 별세, 이상국 KBO 前 사무총장 모친상=20일, 광주광역시 서구 VIP장례타운, 발인 22일 오전, 062-521-4444.

# '10만달러' 샌즈의 반전... "이름값이 전부는 아니다"

3할타·25홈런·100타점 효과 역할 NC 프리드릭도 6경기 5승1패 활약 커리어만큼 KBO리그와 궁합 중요



NC 프리드릭

KBO리그 10개구단의 외국인 스카우트들은 시즌 중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세계 각지를 누비며 혹시 모를 외국 인선수 교체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다음 시즌에 활약할 선수의 리스트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팬들의 눈높이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소위 '이름값' 있는 선수를 데려와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그런 점에서 키움 히어로즈 제리 샌즈와 NC 다이노스 크리스티안 프리드릭(이상 32)의 순환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샌즈는 올 시즌 KBO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 중 한명이다. 19일까지 타율 0.316, 25홈런, 100타점을 기록 중이다. 홈런과 타점 부문 선두다. 기존 외국인타자 마이클 초이스의 대체선수로 지난해 8월 7일 키움과 계약할 당시에는 존재감이 크지 않았다. 몸값 총액이 10만 달러(약 1억 2000만원)에 불과했고, 등록 마감시한(8월 15일)을 불과 1주일 앞두고 계약했을 정도로 '급하게 데려왔다'는 인상이 강했다. 그러나 지난해 25경기만 뛰고도 타율

0.314, 12홈런, 37타점을 기록하며 장타력을 뽐낸 덕분에 재계약에 성공했고 올해는 톱클래스 타자로 올라섰다. 2017~2018시즌 빅리그 출장이 한 경기도 없었지만, 확실한 장점인 파워와 선구안을 눈여겨보고 선택해 성공한 케이스다.

프리드릭은 7월 9일 NC에 합류하기 전까지 미국 독립리그에서 뛰었다. 빅리그에서 124게임에 등판한 경력이 있지만, 2017시즌부터는 마이너리그와 독립리그를 전전했다. 부상으로 시즌 중 떠난 에디 버틀러의 공백만 잘 메워주길 바랐고, 몸값 총액도 20만 달러에 불과했다. 그러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6경기에서 5승 1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하며 선발진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타선의 충분한 득점지원(6.17점)을 받기도 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28이닝 2차책점(평균자책점 0.64)의 파죽지세다. 강점으로 손꼽히는 슬라이더와 포심 패스트볼의 투 피치 위주로 던지고 있지만, 체인지업과 커브의 완성도도 끌어올리고 있어 향후 더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스카우트들의 레이더망에 포착한 외국인 선수들의 기본 기량은 대동소이하다. 커리어만큼 KBO리그의 스타일에 맞는 외국인선수를 고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샌즈와 프리드릭의 성공이 가져올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오늘 KBO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타자는 키움 제리 샌즈다. 지난해 8월 입단 당시에는 기대치가 크진 않았지만 올 시즌 재계약에 성공, 홈런과 타점 부문 선두를 달리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스포츠동아 DB

## '고춧가루 부대' 무려 4팀...후반 레이스 변수로

PS 떨어진 KIA·삼성·한화 롯데 2위·5위 경쟁 '캐스팅보트' 쥐어

해마다 후반기 막바지에 이르러 등장하는 도깨비 팀들이 있다. 가을야구는 좌절됐지만, 정규리그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분전하는 팀들이다. 소위 '고춧가루 부대'다. 본의 아니게 다른 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표현이다. 가을 야구 혹은 그 상위의 순위 싸움이 치열한

팀들이 하위권 팀들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커다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한다.

일반적인 시즌에서는 리그 최하위 팀이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올해는 그 등장과 팀의 숫자가 일반적인 시즌과는 확연히 다르다. 조금 더 일찍, 그리고 더 많은 팀이 고춧가루 부대로 편성됐다.

2019시즌 KBO리그는 초반부터 성적 양극화가 뚜렷했다. 일찌감치 굳혀진 상위 4개 팀은 가을야구를 위해 순환 중이다. 5위 자리를 놓고 NC 다이노스와 KT 위즈가 치

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머지 4개 팀의 가을야구는 현 시점에서 사실 상 모두 어려워졌다.

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가 올해는 모두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자리에 위치했다. 상위 팀들의 입장에서는 시즌 초중반만 해도 승수 쌓기 대상이었던 팀들이 순식간에 도깨비 팀으로 탈바꿈하게 된 셈이다.

5위 싸움만큼이나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팀들은 바로 두산 베어스와 키움 히어로즈다. 두 팀은 2위 자리를 놓고, 전반기 막판부터 현재까지 한 치의 양보가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매운 맛을 느끼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자리다. 두산과 키움, NC와 KT로서는 하위권 팀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승패 마진 손해를 보지 않느냐가 남은 경기의 최대 관건이다.

고춧가루 부대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KIA다. KIA는 올 시즌 단독 선두인 SK 와이번스를 상대로 유일하게 우세(7승1무6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이다. 반면 2·3위권인 두산(3승9패)과 키움(4승7패)에게는 모두 열세를 보였다. 상위권 싸움의 '열쇠'를 쥐고 있는 KIA가 누구에게 시즌 막바지 매운 맛을 보일 지, 남은 시즌의 큰 불거리다. **정재우 기자** award@donga.com